

목어

이런 불사 어떻게

불교의 신행운동은 불자 개인의 마음 속에 부처님을 살아 숨쉬는 본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2천 5백여 년 전에 육신을 거두신 그 분이 오늘 우리들 마음 속에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 경전을 읽어야 한다. 2천 5백여 년의 세월을 넘어 부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때문이다. 경전을 읽지 않고서는 부처님을 만날 수 없고 바른 불자가 될 수도 없다. 그런데 헌문에 조예가 깊지 못한 이들은 글자만 읽고 있을 뿐 그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불교경전을 읽고 의무면에서도 정작 불교를 모르는 웃지 못할 현상을 낳고 말았다.

다행히 이제 불교계 속신사업의 하나였던 역경작업이 완료되어 누구나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글대장경 완간이냐말로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된 지 천 육백 여 년만의 최대의 불사요, 그 어떤 불사보다도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는 불사라 하겠다.

하지만 이번에 출간된 한글대장경이 얼마나 많이 유포되고 있는지는 궁금하다. 비록 신심이 있는 불자라도 신도 한 개인이 한글대장경 한 짝을 구입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경제적 부담도 부담이려니와 그 많은 양의 책들을 보관한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단약 한글대장경이 불자들에게 의해 널리 읽혀지지 않는다면 경전으로서의 생명도 발휘하지 못하거나 번역작업에 쏟았던 정성도 보람을 잃고 말 것이니, 이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이다. 신도 개개인이 한글대장경을 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전국의 사찰마다 한글대장경 비치운동을 벌여 신도들에게 경전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런 불사라면 전국적으로 장려해 볼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성열 (강남포교원장·본지 논설위원)

‘황금 유대’ 기틀 다졌다

조계종 대표단 中 공식방문 ‘의미’

日 교과서 왜곡-신사참배 공동대응 정대 스님 “중국정부 불교지원” 당부

이번 조계종 대표단이 중국정부의 공식초청으로 8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것은 한 중 양국의 불교교류 강화 뿐 아니라 오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격화된 중국불교계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인 정부 수립이후 외국의 성직자를 공식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불교협회, 정부 종교국 인사뿐 아니라 정부 고위당국자와 회담을 갖고 양국의 우호교류, 대북화해 정책에 대해서까지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외교적 성과까지 거뒀다는 점에서 이번 방중 성과가 자못 크다는 것이 내외의 평가이다.

특히 한국불교계와 중국불교계가 일찍이 역사왜곡과 일본 총리의 아스쿠니 신사 참배반대 등 아시아평화를 위한 현안에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해 노력한 것은 한 중 불교계가 교류의 차원을 넘어 양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해결에 힘을 합치겠다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번 방문에서 특히 조계종 대표단은

중국정부가 92년 종교를 인정한 후 중국불교를 되살려 문화혁명이후 단절된 중국전통문화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확인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정부와 조계종은 중국 선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육조스님과 중국불교종중에 이바지한 김교각스님의 업적을 상기하며 양국불교 오랜 뿌리를 재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국정부 종교국 업무국장장은 “중국인 불교대국은 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불교발전과 불교문화보존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며 “물질문명의 발전과 함께 정신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이 앞으로 할 일이다. 한국불교를 배워 중국문화를 크게 융성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대스님은 “중국불교의 발전이 한국불교발전이고 한국불교발전이 중국불교발전이다. 앞으로도 중국불교계의 스님들이 한국에 와서 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화답하며 중국불교보원에 한국불교계가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 대표단 4박 5일 ·

베이징의 기상 악화로 일출 도착시간(12시)경보다 3시간 늦은 9월 8일 오후 3시경에 도착한 조계종 대표단은 베이징(중공화국) VP관에서 환영식을 갖고, 저녁 6시 30분 북경민전에서 중국종교국 양동신부국장 주최 환영연회에 참석했다. 9일 오전에는 이화원을 둘러본 뒤 오후에는 베이징 원제사를 방문하여 중국불교협회 도승인 부회장을 관계자들과 회담 및 신사(7.5)를 인선에 참석하고, 8시 30분에는 서원호텔에서 중국 종교국 업무국장 회담했다.

10일 오전에는 법문사를 방문하여 북경 불학원 학인들을 격려했으며, 오후에는 천안문과 자금성을 둘러보고 저녁엔 국민관인 조계사에서 업무국장 회담을 마치고 11일 오전 11시 30분 양안간담 회담에 회견장에서 리관현 중국 부총리의 회담을 갖고, 저녁 8시 인민대회당 초청연회에 참석했다.

조계종 대표단은 “중국정부에서도 중국불교협회를 적극지원하기 바란다”며 사회주의 특성상 힘이 약한 중국불교계의 위상강화를 위해 고위인사와의 회담에서 불교가 국가에 미치는 좋은 영향을 설명하고, 중국불교협회의 독립성 확보와 사찰재정의 독자사유권 확보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중국문화의 재건을 위해서 불교의 역할이 크다는 인식을 심어 줬다.

한편 교계의 관심을 모았던 달라이라마 방한과 관련한 내용은 중국정부와 조계종이 서로의 미묘한 입장을 고려한 뜻인 지 공식적으로는 거론하지 않았다. 베이징=김원우 기자



북경불학원 학인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정대 스님 등 조계종 대표단이 법문사 법당으로 향하고 있다.

중국 불교 현황

3만여 사찰 25만여 스님

중국불교에 관한 모든 업무는 중국 종교국 신화 중국불교협회의 관장하에 있다. 중국불교협회는 전국 직할시 소수민족군 현 단위별로 구성돼 있다.

중국사회 특성상 회장 등 임원 추대와 중요한건처리는 전국 주요사찰 주지와 재가신도로 구성된 전국불교대표회의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조박초 회장의 열반 이후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전국불교대표자회의를 준비중인 중국불교협회에는 전국 3만여 사찰과 스님 25만여명, 신도 약 1억3천여만명(중국인구 10%)이 가입돼 있다. 이중 50%가 라마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협회산하에는 중무부 외사부 국제부 행정부 고등교육실 종합연구실과

23개 불학원이 있다.

불교협회의 주된 일은 승려양성 및 교육이다. 승려는 1개월간의 수계산림을 거쳐 4년 과정의 불학원 수료후 배출된다. 특히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법문사 소재 북경불학원은 중국 23개 초·중·고급 불학원 중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전국 불학원에서 선발된 엘리트 학인 120여명이 수학 중에 있다. 수업료는 전액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며 교수진은 30명으로 북경대, 인민대, 사회과학원의 명망있는 교수가 초빙되고 있다. 북경 불학원은 또 9명 정원의 석사연구과정도 두고 있으며, 현재 박사과정 개설도 준비 중이다.

한편 중국불교계는 현재 전국 사찰의 사원 관리와 엘리트 승려 육성 및 재가자 교육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행풍토 진작 - 문화포교 주력”

인사부 쌍계사 새 주지 원정 스님

“조실하신 고산스님의 뜻을 받들고 69개 말사들과 화합해 쌍계사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일 쌍계사 설선단에서 열린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 선출된 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 새 주지 원정스님은 역대 주지 스님들의 업적이 누가 가지 않도록 쌍계사의 위상정립과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원정스님은 “30여년전 고산스님께서 주지로 재임하실 당시 쌍계사의 중창불사가 시작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직전 주지이신 통공스님도 강원교육을 비롯 제반 불사에 큰 역할을 해 왔다”면서 앞

신도회 조직 활성화
진산식 비용 장학금

서 주지직을 수행한 스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표했다. 또한 “쌍계사가 지역민을 위한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선원과 강원 스님들의 수행여건을 개선해 출가수행자 본분에 입각한 중생제도를 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수행종로 진작에도 주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진감국사의 도량 강건 이념을 현대에 맞게 펼치는데 주력하고자 특히 문화포교, 복지사업 등을 구상중”이라고 말한



스님은 “받기만 하는 불교에서 벗어나 (중생에게 주는 불교로 변모해야 하며 특히 쌍계사의 전통과 어울리는 불교음악회,

차분보 보급 등에 주력하여 일반인들도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하는 문화포교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원정 스님은 따로 주지 진산식을 갖지 않을 생각이다. 대신 진산식 비용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장학금이나 생활비를 보조할 계획이라는 스님은 “앞으로 정보화에 걸맞은 중무행정 개선, 청년회 신도회 조직 활성화 등을 통해 쌍계사가 포교와 전법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원정 스님은 1975년 쌍계사에서 고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77년 법주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88년 백양사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했다. 해인선원 등에서 수행했으며 고승 운흥사 주지와 쌍계사 호법국장, 총무국장 등을 지냈다.

쌍계사=천미희 기자

전화 한통화로 편리하게
구독료 자동이체 하세요

현대불교를 구독하여 주시는 불자들이 감사드립니다. “신행의 동반자” 현대불교가 지로운지를 들고 온평에 걸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10월부터 구독료 자동이체를 실시합니다. 현대불교 구독료로 전화로 신청만 하시면 구독료가 자동으로 납부되어 보다 편리한 마음으로 현대불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독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좋은 점
-매월 은행을 찾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구독료 연체할 걱정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원 절약의 효과도 있습니다.
-통장에 구독료 납부 내역이 자동 기록되기 때문에 납부확인이 명확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해지 방법
1) 독자번호(성명,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이체 희망자를 전화로 알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상 은행	결제 기간	이체 희망일
농협은행(모든 모은 은행) (단, 우체국·수협은 제외)	예금 잔액이 구독료 보다 적을 경우, 통장에 남아 있는 한도만 납부됩니다.	매월 5, 15, 25일 중 선약

※ 계좌번호 변경이나 해지를 원하실 때도 전화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하셔도 다음달부터 구독료가 자동이체 되므로 신청 당월 구독료는 지로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및 문의 전화: 02)737-0090, 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형
발행·편집인: 김광삼
주필: 김병규
인쇄인: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소평 '마하물' www.mahamall.com.kr
온라인서점 '아시아문' www.yosl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8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7주년을 축하합니다
불국정도를 위해
2000만 불교도와 함께
정진하겠습니다.
大韓佛敎曹溪宗